

가축분뇨 자원화 뉴스

홍보부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지속적 감소

-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년대비 30% 줄어
- 해양경찰청, 폐기물 성분검사 당부

상반기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총 91만4천톤으로 지난해 상반기 131만2천톤과 견줘 약 1/3인 30.3% 대폭 감소했다. 또 폐기물 전체 해양배출량은 상반기 동안 374만1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86만9천톤 (18.8%)이 감소했다.

이처럼 해양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추진으로 육상처리량이 크게 늘고 있고,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의 축분뇨 자원화 인식이 제고된 것이 밑받침이 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하수오니나 폐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 해양배출량 등과 비교해 큰 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 위탁업체 수도 크게 줄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가축분뇨 위탁업체 수는 지난해 3,121개소에서 2,863개소로 258개소가 감소했다.

해양경찰청은 감축률이 저조한 폐기물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들 폐기물을 중점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내년 2월 22일부터 폐기물 해양배출시 법에서 정한 25개 항목을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에 따라,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들이 성분검사 신청을 하고 가축분뇨 성분검사 기간(2007.7.1 ~2008.1.31)내 검사를 완료하여 위탁신고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가축분뇨의 퇴·액비 기준을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역별 양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료수요량 등 기초자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 했다.

또 양분이 초과된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축사 이전비 및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 농장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였다. 이와 함께 퇴비·액비 유통협업체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 문의 :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02)500-2193

양돈·경종농가 '친환경농업 실현' 공동다짐

양돈협,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자연순환농업 조인식' 체결
“경종농가와 양돈농가 연결시키는 가교역할 기대”



◀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은 지난 8월 8일 한국마사회 럭키빌 6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창립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연합회측과 '자연순환농업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왼쪽부터 황민영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회장, 엄성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은 지난 8월 8일 한국마사회 럭키빌 6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이하 연합회) 창립10주년 기념식에서 연합회와 '자연순환농업 조인식'을 갖고 경종농가와 양돈농가가 협력하여 해양배출 감축과 가축분뇨 액비 사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경종농가와 양돈농가가 힘을 합쳐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인식을 통해 경종농가와 양돈농가가 상생을 통해 우리 농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오늘 조인식을 통해 양 단체는 '가축분뇨 액비사용 연계센터' 역할을 해 가축분뇨를 실제로 이용하는 경종농가와 양돈농가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가교 구실을 한다는 계획이며, 또한 지역별 작목반과 지역 액비유통센터간 액비살포 조인식을 적극 추진하여 각 지역별 가축분뇨 액비사용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양 단체는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양돈협회의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뿐만 아니라 조인식을 맺은 경종농가 단체 및 작목반을 통해 액비공급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의 공급물량과 시기를 게재하고 액비를 필요로 하는 경종농가의 신청도 접수하는 등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양돈**